

ISSUE PAPER

2023 Vol. **01**

| 발행인 윤효식

| 발행일 2023. 03. 15.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제 시간은 아직 그 때에 멈춰 있습니다’

01 들어가기

02 학교폭력피해 청소년과 상담자 이야기
: 끝나지 않는 기억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

03 결론 및 대응방안



ISSUE PAPER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 Vol. **01**

2023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1호_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인 쇄 : 2023년 3월

발 행 : 2023년 3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051)662-3136 / F.(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글로브임팩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01 들어가기

‘시간이 흘러 몸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 크기는 더욱 커진다.’

OO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혼자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위축되고 친구들이 비웃는 느낌을 종종 받아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웠다. 결국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반에서 소위 잘나가는 한두 명이 OO를 무시하기 시작하니 다수의 아이들이 따라서 OO를 언어로, SNS 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SNS를 탈퇴도 해보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불안과 공포, 환청이 계속되어 결국 학교에 자퇴서를 내게 되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그 시간, 특히 자퇴서를 내던 날의 아이들의 눈길과 수군거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고통의 감정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 학교폭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님. 국가적 과제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교육부 보도자료, 2022). 특히, 이전에는 피해가 뚜렷하게 보여 신속한 대응 여지가 있는 신체폭력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양상이 역대최고치인 31.6%로 나타나 주변에서 더욱 알기가 어렵고 음성적으로 되어 가는 점에서 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음(권오경, 2020.09.22)
- 학교폭력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다수는 심리적 외상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김준범, 2020)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피해 문제에 더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실제로 9세~17세 사이의 청소년 10명 중 3명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 3명(26.8%)은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어(권오경, 2020.09.22),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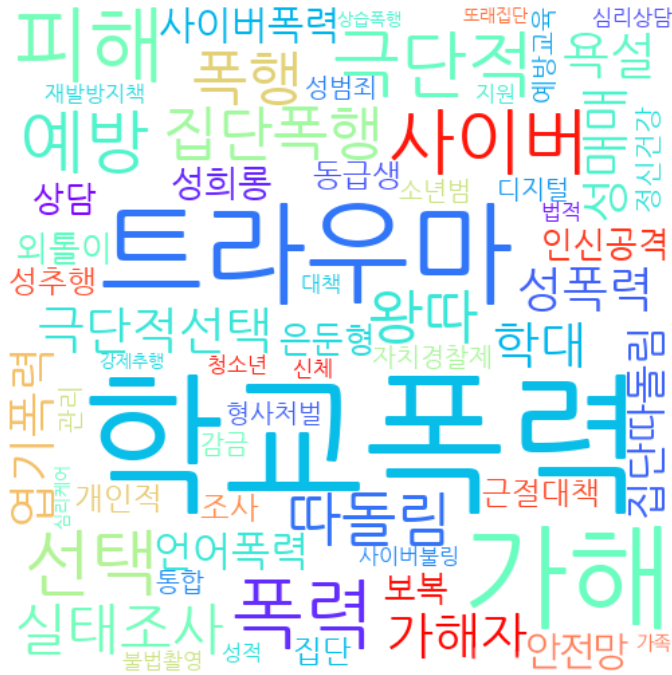
<표1.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상담현황>

(단위: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초등학생	217	382	425
중학생	561	583	786
고등학생	409	473	410
대학생	48	62	46
총계	1,235	1,500	1,667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YS-Net

- CYS-Net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상담실을 찾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초·중학생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을 때, 학교폭력 피해가 저연령화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음.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수업의 간헐적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심리지원에 대한 상담자와 청소년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학교폭력 뉴스 키워드 분석>

- 2021년~2023년까지 작성된 온라인 기사 중 학교폭력 관련 검색어를 포함하는 1,333개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¹⁾, 주요 키워드로 학교폭력, 극단적 선택, 학교폭력 가해, 피해 등이 제시되었음. 눈여겨볼 것은 2021년에서 2023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 다음으로 ‘트라우마’, ‘외상 후 피해’ 키워드가 주요하게 제시되어 학교폭력 이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짐
- 다수의 연구에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경우, 단순 PTSD 증상과 복합 PTSD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제시함. 피해 청소년 중 20%를 차지하여(정지선, 안현의, 2008),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물론 성인기 대인관계 적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Glaser,1981)

1)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 KINDS(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에 등록된 11개 중앙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선택하여 분석함

- 복합 외상이란 폭력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극도로 위협적이거나 끔찍한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외상 경험으로, 이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될 수 있음(WHO, 2018)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느끼는 복합 PTSD 증상]

-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 변화
 - 과거의 일부를 기억하지 않거나 외상경험을 의식에서 분리시키는 일시적 의식 기능 변화
 - 외상사건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등 부정적 자아개념과 같은 자기 인식의 변화
 - 타인을 믿지 못하고 관계를 회피하는 대인관계 변화
 - 만성적 고통 등 신체화 증상 호소
 - 살아오면서 가진 신념에 의심을 갖게 되는 의미 체계 변화
- 학교폭력 외상 피해를 겪는 청소년 3명의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현실은 더 참혹하고 쓸쓸했음. 성장기에 겪은 폭력인 만큼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치유하여 극복하는 것이 주요한 결과로 나타남
 - 이에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그들을 상담하는 상담자의 목소리를 통해 외상 피해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가족, 상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심리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02

학교폭력피해 청소년과 상담자 이야기

: 끝나지 않는 기억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

-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피해로부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 「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결과를 재구성하고, 학교폭력피해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 3명과 상담자 2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해답을 찾아보고자 함

- 상담실을 찾아온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주 호소 문제²⁾

상담실을 찾은 청소년들은 괴롭힘(50명, 58.1%), 언어폭력(47명, 54.7%), 사이버폭력(26명, 30.2%)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음.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불안·위축(71명, 82.6%), 강박·불안(30명, 34.9%), 등교거부(30명, 34.9%), 대인기피(27명, 31.4%)로 나타났으며,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는 우울·위축과 대인기피 문제, 외상 후 피해를 우선순위로 보고함

학교폭력 피해 직후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지배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무기력, 우울, 낮은 학업성취, 자살 위험 노출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남. 특히, 핵심감정으로 ‘불안’, ‘우울’, ‘분노’가 표출됨



상담자 A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신체화 증상으로 머리가 아픈 다든지 짐을 설치하는 문제 등을 주로 호소해요. 계속 본인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심리적인 영향은 계속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살 시도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자살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징후가 초반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상담자 B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1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



청소년A

"나는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세상이 나를 몰라줄까 싶어서 속상하게만 느꼈는데 당시를 회상해 보니 제가 화김에 욕상으로 올라가고, 책을 던지거나 몸에 상처를 내며 자해를 했더라고요, 분노의 대상을 저에게로 돌린 거예요."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 웅었던 것이 모두 다 잘못되었었구나 하는 생각들. 난 월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무력감이 가장 컸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숨고 싶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 너무 괴로웠어요"



청소년B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무기력감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불안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기력과 우울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 불신의 감정을 주로 경험함



청소년A

"상대방이 때리면 '때리지 마. 하지 마'라고 해도 '장난인데 뭘 그래'라면서 툭툭 치고 그래요. 한두 번은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 명이 괴롭히면 더 이상 저도 말을 하는 게 무의미해요.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다수가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소수인 저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아서 무력감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있던 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못한 건 사실 우리 엄마 생각을 해서예요. 제가 맞은 걸 알면 부모님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무리에게 폭력을 당한날도 전 상가 화장실에서 씻고 집에 들어 갔어요. 제가 맞고 상처가 난 걸 며칠 동안 학교에서 늦게 오는 척, 아침에 일찍 가는 척하면서 얼굴에 난 상처를 안 보여드렸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을 땐 상처가 조금 아물면서 가해자들도 크게 처벌을 안 받았죠.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 바로 대응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청소년B



청소년C

"학폭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제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가해자들 처분도 가볍게 받고, 그런 억울함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거죠. 지금도 그 감정들은 잊히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무뎠던 성격이라서 그냥 참으면 된다 참아라 이런 걸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나는 덩치도 큰데 다 혼자 참고 있었어야 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왜 안했을까? 생각이 들며 분노와 우울감을 더느꼈다고 해요.”



상담자B

탈출구 없는 세상에서 상담실로

외상 피해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소외시키거나 공격·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성인기에 되어서도 안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함(Cosgrove, Nickerson, & DeLucia, 2017).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상담이 필요한데, 주변의 관심으로 상담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A

“담임선생님 제안이 컸어요. 학교 Wee클래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충동, 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상담실에서 상담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셨고, 수업 중간 중간에도 호흡이 가벼워질 정도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그때마다 상담실 가서 상담하고 했어요.”



청소년B



상담자A

“제 내담자는 학폭 사건 직후 온 것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전학을 시키고 공간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친구들과 같이 지내기 어렵고 내담자가 환청, 불안 등의 문제를 호소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부모님이 아이를 상담실에 데리고 오셨죠.”

상담을 통해 나와 주변을 마주하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는 상담자와 부모님을 통해 위로받고, 심리적으로 안정됨



청소년A

“저는 주에 1번씩 상담을 다녔는데,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되었고 잠시나마 지친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 거 같아 좋았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고, 잘못된 것은 조언해 바로잡아주시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담하면서 불안하면 지금 이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이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택배 상자를 스티커부터 뜯으면서 차곡차곡 정리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이요.”



청소년B



청소년C

“저는 자퇴하면서 상담을 시작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퇴서를 내는 날, 학교에서 비웃는 듯한 친구들의 웃음소리, 눈빛을 보며 굳게 다짐했죠. 자퇴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 그러면서 상담을 꾸준히 받고 제 불안과 분노를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님도 제 그런 결정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지금도 참 감사해요”

“상담을 하며 청소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찬찬히 살펴보고 내가 왜 이런 감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왜곡된 사고를 함께 수정해 나가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로탐색도 하면서 조금씩 그 기억들을 수용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상담자A

내 탓이 아니었다는 자각

학교폭력 외상 후 피해 경험은 분노와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내가 나 자신에 떳떳해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극복하는 첫 출발점이 됨. 상담을 통해 외상 후 극복과정을 경험함



청소년A

“가장 슬펐던 건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 나 역시도 나를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들고, 나머지도 나한테 돌을 던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마..그 가해자 애들보다 제가 잘 되면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지금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내 마음과 감정을 알아차린 것이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네 사진관 앞을 지나다가 영정사진을 봤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진인데도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놀랐어요. 저렇게 영정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웃고 있네? 그리고 나는 지금 딱 20살이 돼서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예쁜 나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죽고 싶어 하지 싫다가 딱 이제 눈치를 찡 거죠. 제가 내가 정말 많이 살고 싶었구나."



청소년B



청소년C

"그때 경험은 생생하게 몸과 마음이 다 기억해요.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닌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은말, 그들이 잘못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청소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힘을 얻고, 가해자들에게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됨. 현재는 자신을 마주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에 한걸음씩 내딛고 있음



청소년A

"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났어요. 제가 잘 되어 있으니깐 그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잘 있었냐고.. 그때 일은 미안하다,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전 그렇게 말했어요. 너와 나의 시간과 공간은 18세 그때에 멈춰있다고."



청소년B

"너무 단조로울지 모르나 진심어린 사과예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아서 사과 편지 한 장 받았는데요.. 그거보다 전 친구들 있는 곳에서 아니 저한테라도 진심으로 미안했어 라는 사과를 받고 싶어요."

03 결론 및 대응 방안

○ 학교폭력 외상 경험이 만성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 상담 개입을 통해 외상 후 성장 과정³⁾을 경험하도록 지원

- 많은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은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며, 적시에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외상으로 남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음
 - 피해 청소년들은 상담을 통해 외상사건 후 고통을 이겨내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Calhoun, L. G., & Tedeschi, 2014) 적절한 시기에 전문성 있는 심리·정서 상담을 통해 피해 청소년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이 중요함
 -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학교폭력 외상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2022년 개발하여 올해부터 전국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전문상담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전화 1388 뿐만 아니라 고위기 청소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카카오톡상담', '문자상담' 등 비대면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청소년 심리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바로가기](#)

○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신념, 또래가 함께 돕겠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

-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동네의 작은 괴롭힘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생길 때 모든 청소년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임
-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 학교, 주변인이 사소하지만 작은 도움을 주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상황에 우리 함께 민감성을 키우고 노력해야 함
- 청소년 스스로 지지적이고 협동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 변화를 위해 청소년 희망센터를 운영,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권리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바로가기](#)
- 또한 2021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청소년용 지침서」 개발, ▶ [바로가기 : 청소년용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전국의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사이버 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 청소년 폭력예방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공감·배려 중심의 청소년 문화 조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3) 외상 사건 후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과의 관계변화 그리고 인생관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 함(Tedeschi&Calhoun, 1996)

○ 학교폭력 외상 후 피해 청소년과 부모를 돕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외상 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학교폭력 외상 후 피해 자가진단 척도 CRIES(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를 통해 외상 후 피해 위험율을 측정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지역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음(부록참조)
- 또한 피해 청소년을 돌보는 부모의 자기돌봄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집단상담을 진행예정임 보호자를 위한 집단상담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카드뉴스를 통해 피해 청소년과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함
▶ 바로가기 [\[제 시간은 아직 그때에 멈춰 있습니다\]](#)

[부록] 외상 후 피해 자가진단 척도 CRIES(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아동용 (CRIES: 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은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을 경험한 아동의 PTSD 발병 위험율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로 국내 번안되어 타당화된 척도임(오은아, 2014). 자가 검사 후 **30점 이상**일 경우, 상담을 권고함

아래 문항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경험한 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일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 각각의 문항에 표시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0	1	3	5
그 사건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합니까?	0	1	3	5
주의를 기울이거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0	1	3	5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 세계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까?	0	1	3	5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쉽게 놀라거나 예민해졌습니까?	0	1	3	5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피하며 지내고 있습니까?(장소나 상황 등)	0	1	3	5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0	1	3	5
그 사건의 장면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릅니까?	0	1	3	5
다른 일들이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까?	0	1	3	5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0	1	3	5
쉽게 짜증이 납니까?	0	1	3	5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주의를 경계하고 조심합니까?	0	1	3	5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0	1	3	5

출처: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2015)「해바라기센터 자기보고식 척도 자료집」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2015), 『해바라기센터 자기보고식 척도 자료집-필수 항목 권고안』
- 교육부. (2022. 09. 06.).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권오경. (2022. 09. 22). 푸른나무재단, 2022 전국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발표. 이뉴스투데이. <https://www.e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0949>
- 김준범, & 최서연. (2020). 피해와 우울의 악순환: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의 중단적 매개로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50, 1-24.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오은아, 배성만, 박은진 and 이승환.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12(2), 149-156.
- 이희연. (2013).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학교사회복지, 25, 275-309.
- 정지선, & 안현의.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 외상 (Complex Trauma) 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차주환, 이창호, 백정원, 최수정, 소수연, 주혜선. (2022). 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Calhoun, L. G., & Tedeschi, R. G. (Eds.). (2014).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Routledge.
- Cosgrove, H. E., Nickerson, A. B., & DeLucia, J. (2017). Past peer victimization and current adult attach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0(1), 22-36.
- Glaser, K. (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3), 368-382.
- Oh, E. A., Park, E. J., Lee, S. H., & Bae, S. M.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Revised Impact of Event Scale.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12(2), 149.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orders-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ICD-11 MMS) 2018 Version(Version: 04/2019).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browse11/l-m/en>.

